

시장 면담 참고 자료

- 일시: 2022년 7월 28일 오후 4시
- 장소: 경주시청 시장실
- 참석: 정현걸 의장 외 집행위원

황성공원 솔밭 맥문동 식재

○ 맥문동 식재 현황

- 2015년 식재 시작하여 현재 18,700m² 규모(축구장 2.5개 면적)
- 2023년 시립도서관 방향으로 식재 구역을 더 확장할 예정

○ 맥문동 식재 문제

① 소나무 식생 위기 초래

- 소나무는 호기성 근균에 의해 영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음. 솔밭에 맥문동 단지를 조성하면 소나무의 뿌리 호흡에 방해되고 맥문동과 소나무 뿌리가 경쟁하기 때문에 소나무 생장에 해로움.
- 특히, 나무 밑동의 뿌리는 ‘목질성 뿌리(Woody roots)’로 줄기처럼 다루어야 하며 반드시 공기에 노출되어 있어야 함. 목질성 뿌리에 흙을 덮고 식물을 키우면 나무가 서서히 죽어 감.
- 맥문동 식재 구역을 중심으로 전지 작업이 무분별하게 실시하여 소나무 생장을 훼손함.

② 솔밭의 다양성 훼손

- 솔밭은 주변의 풀, 곤충 등과 천연 생태계를 이루고 있음. 맥문동 식재로 획일화됨.
- 솔밭은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휴식처임에도 불구하고 맥문동 식재로 접근성이 상실됨. 솔밭을 보호하는 다양한 방안이 있으며 맥문동 식재는 솔밭 보호 방안이 될 수 없음.

○ 황성공원 숲 관리 방향

- 맥문동 식재를 중단하고 솔밭 복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.
- 황성공원은 ‘인공 정원’이 아니라 ‘자연 숲’으로 관리 및 복원되어야 함.
- 명칭도 황성공원이 아니라 ‘황성숲’ 등으로 개칭되어야 함.
- 신라시대부터 임수로 지정 관리되어 온 역사적인 자연 숲으로 고양수(高陽數) 등으로 불리어 옴.
- 1938년 간행된 [조선의 임수]에 따르면 경주지역에 19개소의 임수가 존재했으나 현재 7개소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, 사실상 황성공원이 유일함.
- 역사적 가치를 살리면서 자연 숲으로 생태 복원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.

피막지 남생이 보존방안 마련

○ 피막지 남생이 현황

- 남생이는 토종 민물 거북이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법정 보호종.
- 남생이는 역사적 가치도 뛰어나서 태종무열왕 비의 기단, 조선시대 국새 등에 나타나는 거북이가 바로 남생이.
- 피막지는 남생이 최대 서식지로 알려지고 있음.

: 2021년 2월, 피막지 보수 공사 시 25마리 포획(사.한국남생이보호협회 사육 중)

: 2022년 5월, 피막지 조사 시 54마리 포획 후 방사

○ 피막지 훼손 상태

- 피막지 상류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서 침출수가 유입되고 있음. 침출수 유입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제 기능을 못 함.
- 자원순환과의 수질 조사에 따르면 농업용수로 부적합.

항목	측정값	등급	기준(저수지)
화학적산소요구량 COD	25.0	등급 외	8이하
부유물질 SS	12.5	iv	15이하
총질소 T-N	1.182	v	1.0이하
총인 T-P	0.048	iii	0.1이하
총유기탄소 TOC	6.3	v	6이하

*부유물질 iv등급으로 측정됐으나 현장은 쓰레기 떠 있음(vi 등급)

- 주민들에 따르면, 과거 남생이가 피막지 가장자리의 나뭇가지 등에 올라와 햇볕을 쬐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고 함. 그러나 7차례 정도 피막지 답사를 했으나 남생이를 목격하지 못함.

○ 피막지 생태보존 시급

- 남생이가 햇볕을 쬐며 휴식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야 함.
- 매립장의 침출수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.

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

○ 제안 배경 및 경과

-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 국가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감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 마련하고 있음.
- 장례식장은 대표적인 일회용품 소비처로 김해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음.
 - : 김해시,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운영하여 민간장례식장에 다회용기공급
- 2022.6.11. 경주시환경대축제 행사에서 ‘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’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주낙영 시장님께 사업 제안 공문을 전달함.
- 2022.6.13. 자원순환과에서 사업 추진 의향을 밝힘.

○ 경주시의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공유

- 모든 나무는 목질성 뿌리를 반드시 공기에 노출해야 함.
이곳을 흙으로 덮으면 서서히 고사함.



- 맥문동 식재 지역의 소나무, 목질성 뿌리가 흙으로 덮여 있음.

